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5. 2.(화) 11:00,
(지면) 2023. 5. 3.(수) 조간

배포 2023. 5. 2.(화) 06:00

어촌신활력증진사업 관계자 모여 체계적인 추진 방안 논의한다

-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, 민간전문가, 지자체 등 관계자 공동연수(워크숍) 개최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올해 처음 시작되는 ‘어촌신활력증진사업’ 중 ‘어촌 경제거점(플랫폼) 조성(유형 1) 사업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5월 3일(수) 대구대학교 연수원에서 관계자 공동연수(워크숍)를 진행한다.

<어촌신활력증진사업 주요 내용>

- (유형 1) 수산업 기반 어촌 경제거점화 25개소, 개소당 300억 원 지원
- (유형 2) 어항 자립형 어촌 175개소 육성, 개소당 100억 원 지원
- (유형 3) 소규모 어촌 시설 확충 100개소, 개소당 50억 원 지원

이번 공동연수(워크숍)에는 사업대상지역 주민대표, 민간전문가,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,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.

이번에 공동연수(워크숍)를 진행하는 ‘어촌 경제거점(플랫폼) 조성사업(유형 1)’은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재정을 지원하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‘어촌 경제거점’을 육성하는 것으로, ‘어촌신활력증진사업’의 핵심 사업이다.

2023년도 사업 대상지로는 강원 고성, 경북 영덕, 경남 거제, 전남 보성, 충남 보령 등 총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, 여기에 총 3조 원의 민간 자본이 투입될 계획이다. 민간 투자자는 사업 이익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거나 재투자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할 예정이다.

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“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.”라며, 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공동연수에서 지역주민 및 민간전문가 등과 사업 관련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.”라고 말했다.

‘어촌신활력증진사업’은 해양수산 분야 대표 국정과제로, 소멸위기인 어촌의 일자리 확대와 삶의 질 개선을 통해 생활인구를 끌어들이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사업이다.

해양수산부는 앞으로 5년간 총 300개소에 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,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①어촌 경제거점(플랫폼) 조성, ②어촌 생활거점(플랫폼) 조성, ③어촌 안전시설(인프라)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한다. 지난 1월에는 2023년도 ‘어촌신활력증진사업’ 대상지 65개소*를 선정하였다.

* 어촌 경제거점(플랫폼) 조성(유형 1) : 5개소, 어촌 생활거점(플랫폼) 조성(유형 2) 30개소, 어촌 안전시설(인프라) 개선(유형 3) 30개소

담당 부서	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	책임자	과 장	고송주 (044-200-6170)
		담당자	서기관	이형민 (044-200-6174)



참고 1

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 1) 워크숍 개최 계획

□ 워크숍 개요

- (목적) 민간투자사업과 병행 추진되는 ‘유형1’ 사업 관계자 간 사업정보 공유, 전문가 자문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
- (일시 및 장소) ‘23. 5. 3.(수), 경북 영덕군 대구대학교 연수원
- (참석자) 해양수산부(어촌양식정책관), 외부 자문위원, 담당 공무원 (시·도, 시·군·구), 민간투자사, 마을리더, KMI, 추진지원단 등 약 40명
- (진행) ①유형1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, 집행계획 등 지자체 발표* (30분)→②전문가 자문 및 토론(20분)

* 공모시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추진경과 등을 현행화하여 작성

□ 세부 일정

일 시			세부내용		비 고
5/3 (수)	13:30~13:35	5'	○ 개회 및 인사 말씀		어촌양식 정책관
	13:35~13:55	20'	○ 전문가 발제		
	13:55~18:05	250'	사업내용 발표 및 토론	○ 경북 영덕 강구항	지자체 발표 (30분)· 전문가 자문 및 토론 (20분)
				○ 경남 거제 장목항	
				○ 충남 보령 삼시도항	
				○ 전남 보성 울포항	
				○ 강원 고성 공현진항	
	18:05~18:10	5'	○ 폐회		어촌양식 정책관

* 세부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
참고 2

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

□ 추진 배경

- ※ (어촌의 중요성) 어촌은 영토의 시작점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위치로 해양영토 수호, 지역 수산물 생산 거점,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
- 어촌은 낮은 소득, 양질의 일자리 부족, 취약한 생활서비스 등 열악한 생활·경제여건으로 심각한 소멸위기*에 직면
 - * 어가인구 : ('00년) 251천명→('20년) 97천명('00년 대비 △61.4%)
- 어촌뉴딜300* 등 어업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만으로는 고령화·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어촌활력 저하 및 어촌소멸 문제 대응에 한계
 - * 낙후된 어항시설·기항지 정비 등 생활 SOC 확충 사업('19~'24, 총 3조원)
- 어촌 규모·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, 거점과 주변지역의 유기적 연계 등 기능 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어촌·어민 활력 제고 필요

→ 낙후된 어촌 생활·경제 환경개선 및 신규인력 정착 지원 등 **어촌생활권 규모·유형별로 5년간 사업 대상 총 300개, 재정 3조원* 맞춤 지원**(국정과제 73)

* (유형1) 25개, 개소당 300억원, (유형2) 175개, 100억원, (유형3) 100개, 50억원

□ 사업 유형별 주요 내용

①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(유형 1)

- ◆ 재정지원과 민간투자 유도를 통해 어촌 경제·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는 역동적 '**어촌 경제거점 도시**' 25개소(총 7,500억원, 개소당 300억원) 조성

- ① (경제기반 확충)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도시에 수산물 유통·가공·판매 복합센터, 해양관광 단지 등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

< 생활·경제 Hub&Spoke >



- ② (생활서비스 공급) 마트 등 수익시설과 어업인 물리치료 등 복지시설이 융합된 생활서비스 복합시설을 조성하고, 주변 생활권으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

※ 수산물 가공·유통 단지 등 대규모 자본 필요 시설은 민간 투자 유치, 어항 도입시설 확대, 절차 간소화 등 규제혁신 및 '어촌어항 활력펀드(가칭)' 도입 등 민간 투자 여건 개선

②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(유형 2)

◆ 어촌 정주·경제 환경 개선을 통해 도시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'**자립형 어촌**' **175개소**(총 1조 7,500억원, 개소당 100억원) **지원**

- ① (**어촌형 소득원 확대**) 간편식(순살 고등어) 등 어촌공동체의 신규 소득원과 부가가치 창출*을 위한 제조·가공 및 판매시설 지원

* (예시) 고등어(350g) 2,000원 → 가공 순살 고등어 10,000원(부가가치 5배 향상)

- 마을연금을 도입하는 지역에 상품개발·판매, 관광서비스 인프라 시설을 우선 지원하여 어촌공동체가 주도하는 소득 안전망 강화

- ② (**어촌 생활편의 지원**) 빈집 리모델링, 공공주택(10~20호) 등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 및 주민 융합 프로그램 등 유입인구의 정착 지원

- 어촌생활권* 내 어업인 질환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서비스 지원, 섬 등 조건불리지역은 무인 판매시설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 확보

*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어항을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연계, 경제생태계가 형성되는 공간 범위

③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(유형 3)

◆ 낙후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·안전시설 개선 등 **소규모 어촌 100개소**(총 5,000억원, 개소당 50억원) **최소 안전 확보**

- ① (**생활환경 개선**) 태풍·해일 등 대비 재해 안전시설 보강, 빈집 정비·공동쓰레기 집하장 조성 등 마을환경 정비

- ② (**교통편의 증진**) 선착장·방파제 등 여객선 접안시설 확충*, 대합실·매표소·화장실 등 필수 여객 편의시설 개선

* 여객선 기항지 접안시설 331개소 중 보강 필요 시설 76개소